# 군 자료 압수수색·동행명령 등 강력한 조사권한 부여

## 조사위원 15명…국회 8·대통령 4·대법원장 3명 지명
## 국가기관 업무 협조 의무 … 진상규명 도운 가해자 보호

**5·18 특별법 내용**

11일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은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인명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단 한 명도 법안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친 의석수(160석)가 전체의원의 과반(151명)을 넘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5·18특별법 무슨 내용 담겼나=5·18 특별법을 근거로 꾸려지는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4명, 대법원장은 3명을 지명해 각각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안 제3·6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이며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조).

희생자·피해자이거나 유족·친족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제24조).

'법안 제2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 행사 등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31조'에는 진상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제3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공동 수행하는 등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매년 2회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은 공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35조)

'제37조'에서는 '제35조'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떤 증언을 했는지 밝힐 수 없도록 했으며, 사생활과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조사대상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제40조'는 진상 규명을 적극 도운 가해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 처벌받지 않거나 감형, 특별사면, 복권 등을 건의할수록 있도록 해 협조를 유도한다.

반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 등을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진실 왜곡을 위해 조사 신청을 허위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3000만원, 출석 등을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다.

◇5·18특별법 법제화까지는= 법안을 발의한 최경환 의원 측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법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가 배정(국방위·행자위·정무위 중 한 곳)된 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진다.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된다.

최의원 측과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3단체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더라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은 물론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5·18 관련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겠다'고 약속한데다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인 탓이다. 법안 발의에 바른정당과 정의당 의원 일부가 참여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발의된 법안이 국방부 및 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 동행명령 권한, 벌칙조항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담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 측 일부 인사들은 지금도 '5·18 북한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는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족하나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측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조사 권한 축소 등 법안 후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은 "5·18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드러난 진실이 더이상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최경환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왜곡·폄훼 주 내용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도 포함해야"

**5월단체·지역민들의 기대**

광주 5월 관련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 발의를 환영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조사 범위에 ▲북한군 특수부대의 5·18 개입 ▲신군부의 내란음모행위 등을 새로 추가해 진실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등의 초당적 협력도 주문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와 5·18기념재단은 11일 공동 입장을 내고 "5·18특별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광주시민과 함께 37년 동안 5·18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가해자 쪽 우두머리인 전두환마저 '자신이 5·18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이 협력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음모행위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주 내용인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이기도 하며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특별법과 왜곡에 관한 처벌법 처리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을 토대로 구성될 조사위원회의에 수사권, 기소권 등 조사권한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특별법으로 규명해야 할 3대 과제는

## 발포 명령자는 누구
## 전일빌딩 기총소사 진상은
## 행불자 암매장지 어디

대선공약으로 '5·18진상 규명'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크게 5·18 관련 핵심 의혹들은 '최초 집단 발포 명령자', '헬기기총소사 명령자', '행불자들 암매장지'이다.

5·18 의혹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밝혀내야 할 내용은 1980년 5월20일 3공수여단에게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냐이다.

5·18 당시 2군사령관이었던 진종채 장군은 지난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이부영 검사실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 전두환·노태우 등이 광주 비행장에 따로 따로 내려와서 전교사사령관, 505보안부대장을 만나고 갔다는 사실을 2군사령부 참모부에서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5·18 당시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은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광주에 방문했다"면서 "1980년 5월 26일 오전 10시30분~11시경 광주 공군 비행장에 전두환 사령관이 와 있는데, (전교)사령부(계엄사 광주전남분소)에도 갈지 모르니 왕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비행장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황상 모두가 발포 명령자로 전두환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정작 본인은 최근 회고록까지 써가며 발포명령을 부인하고 '광주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헬기기총소사 명령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일빌딩 복원과정에서 탄흔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 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무차별 난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5·18단체와 5·18 유가족 등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와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관련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시민들의 숫자는 441명이다. 광주시는 관련 증거가 뚜렷한 75명을 행방불명자로 인정했다. 현재 5·18민주묘지에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주인 없는 '가묘' 67개가 세워져 있다. 5·18 당시 사라진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꼭 풀어내야할 과제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 5월 단체 등이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대책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실규명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대책위는 우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특별법 개정, 기념곡 지정 등 법률·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국회 헌법 개정 로드맵에 따른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도하기로 했다. 5·18 왜곡세력 처벌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 등도 전개키로 했다.

진실규명 부문에서는 진실규명특별법 제정,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국가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진실에 한층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7/11 7/18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 · 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 · 야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 · 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팁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신안마 90분 2회, 바구니배, 바나산국립공원+케이블카,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씨클로, 투본강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 경비
◆불포함사항 : 개인 경비, 매너 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